

찬양해요

찬송가 510장

기도해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

말씀을 읽어요

사도행전 22:6-11

- 6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 7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 8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 9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 10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 11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말씀 이해하기

오늘 이야기는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초창기 기독교 박해에 핵심적인 인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회당에서 때렸으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밝은 빛과 함께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은 이전에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사울을 찾아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사울의 삶은 전적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가정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사울에게 나타나셨는지 알아보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좀 더  
생각해  
보기

1. 예수님은 사울에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셨나요(6절)?

▶ □□□에 가까이 갔을 때에 □□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이 나를 둘러 비치매

2. 땅바닥에 엎드러진 사울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7-8절)?

▶ 하늘에서 들려온 □□가 있어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3.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나요(10절)?

예수님을 □□이라 불렀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예수님께 여쭙었어요.

사울은 순식간에 □□□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4. 주님의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꺾박했던 사울과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각자의 모습을 가족과 함께 나눠 봅시다.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 가정도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따를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